

돼지 개체관리로 질병 조기치료가 중요

질병초기 식별을 통해 치료 효과 극대화 해야



지난 2월 21일 경기도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 주관 양돈기술 세미나에서,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그레고리 오토 대표는 “돈군에서 개별적인 처치가 필요한 개체를 찾아내고, 질병 초기단계에 잘 식별하여 바라는 대로 치료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돈사부터 육성 비육돈사까지 몇 가지 일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매일 돈방을 점검해 아픈 개별 돼지를 치료하고 △급수기를 점검하고 급이기를 바르게 조정할 것 △처치가 필요한 돼지들 중 95%를 발견할 것 △이유자돈에서 2% 미만, 육성비육돈에서 2% 미만으로, 이유 후 총 4% 미만 폐사율을 달성할 것 등 목표 설정을 권장했다.

특히 그는 “입식 후 첫 2주 동안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이 기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돈방을 둘러보고, 돼지 개체를 식별하여 치료함으로써 더 큰 치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돈은 어떤 단계에서든 무기력해 보이는데, 환돈은 벽이나 사료급이기에 가깝게 있으며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채여서 비틀거리고 사료와 물 섭취가 부족해 옆구리가 약간 움푹하다고 밝혔다. 또 눈은 흐리멍텅하고 검은 분비물을 보이기도 하며, 관절이 붓거나 걸음걸이가 뻣뻣할 수 있고, 열 때문에 더 분홍빛을 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증상들은 찾아내기 쉽지만, 환돈이라 해도 본능상 아픈 증상을 숨길 수 있으므로 질병 초기의 돼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양돈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과의 전환으로 호황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의 2008년도 양돈정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 이오수 과장의 소독제 특성과 적용 ▲홍성 쌍마농장 이재형대표의 9년 연속 MSY 20두 달성 사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양돈**